

[경제]

■ 속속 드러나는 정부 실물경제 부양 대책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실물경제 부양대책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 대책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세·지출 대폭 늘려 경기 띄운다

◇ 감세·지출 확대로 경기 띄운다 = 정부는 이미 세제개편안을 통해 26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마련했지만 추가 감세안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적립식 장기 주식형 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발표한 것은 추가 감세안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제시된 세제개편안 가운데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대안으로 불 수 있다.

감세를 하면 그 만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를 늘리고 내수 경기의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6.5% 증액한 273조8천억원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추가 감세안 마련 ... 273조 규모 내년 예산까지 기업 활동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 과감히 풀어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예산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덩어리 기업규제' 과감하게 푼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0차 규제개선 회의를 열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등 덩어리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런바 '국민 정서'를 발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덩어리 규제란 기업활동과 관련해 여러 부처의 정책과 이해가 중첩된 규제로 업계에서 즐기게 대폭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가 논의될 것"이라며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또 가진 부분의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입주자가 빌트인 가전을 모두 선택하거나 모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두 가지 선택권만 주지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

로 바꾸고 기본선택 품목에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 에어컨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가진 부문에서 연간 6천720억원의 내수시장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수출 둔화 대비해 내수 부양 = 정부는 수출 둔화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응해 업종별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일반기계 업종은 공장 이전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의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기능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국산 원사를 사용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봉제클러스터'를 구축해 고급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국내 의류 브랜드의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Table showing exchange rates for various currencies including USD, JPY, EUR, CNY, and AUD. Includes a photo of a person at a bank counter.

환율 불안 여전

2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환율을 계산하고 있다.

해외 여행 '뚝'

5개월 연속 감소 ... 9월 81만명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9월에는 무려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9월의 방문 외국인은 58만7천8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7천825명)에 비해 5.38%가 늘었지만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81만8천7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1만5천650명)에 비해 19.39%나 줄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은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지난 5월 109만 9천977명으로 1년 전보다 0.7%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뒤 6월에는 5.6%, 7월에는 12.5%, 8월에는 11%가 줄었는데 9월에는 19.39%나 급감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지금 100년만의 기회 투자에 일관성 유지 당부”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은 현재 증권시장이 “100년에 한번 있을만한 절호의 투자기회”라며 “일관된 투자전략을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지난 24일 전국 지점장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은 가치보다는 유동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7배로 청산 가치를 밑도는 과매도 국면에 있으며 외국인 매도세도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체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어 환율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며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의 동반 부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증권시장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즉각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중국이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9%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내수진작을 통해 시장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 흥분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시기다. 향후 통화공급을 통한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투매가 일상화하고 매수세가 실종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강한 매수세가 생기는 것이 시장의 속성”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금리 대폭 인하·유동성 확대 폭락 증시 ‘일단 멈췄다’

정부의 금리 대폭 인하와 시중 유동성 공급 등 잇따른 초강수 정책이 증시의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해도 추가 급락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하는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은행채 매입과 외화 대출은 유동성 경색을 완화해줄 것으로 보여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이전되는 것을 상당부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KB투자증권 조병문 리서치센터장은 “금리인하와 은행채 매입은 한이 그 동안 금융기업들의 유동성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원화유동성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시장 참여자의 불안심리를 앓고 원·달

러환율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전문가도 최근 증시 급락이 국내 기초 여건의 훼손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심리 때문임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이 증시의 방향을 돌려놓기보다는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MC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증시는 지금이 저점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은 증시의 추가하락을 멈추고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경기가 대단히 나빠지지 않는 한 하락은 멈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지방예산 13조 푼다

행안부 경기활성화 대책 추진 ... SOC 등 시설 예산 9% 확대

내년 지방 예산 가운데 13조원 가량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고, SOC(사회간접자본)를 비롯한 시설분야 예산이 9% 이상 늘어나는 등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실물부문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 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 27일 열린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각 시·도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대책에서 시중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의 내년 예산 가운데 상반기에 집행하는 예산 비율을 올해 32.96%에서 40%

까지 확대, 올해보다 13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연말까지 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 올해 12월 중 조기 계약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계약에 대한 선급이나 공사 진도별 기성금 지급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결제 방식으로 직불제도와 현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내년 지방 예산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등 시설분야 예산을 올해 33조원에서 37조원 정도로 9% 이상 늘려 내수경기 활성

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건설 부문 등 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토지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기업합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절감분의 5%를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의 ‘청년인턴제’ 도입에 투입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내년 경기 침체 탈출 가능성”

골드만삭스 ...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 전망도

골드만삭스증권은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적어도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 경제가 내년에 경기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2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날 “한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것은 인플레이션보다 경제성장률에 주안점을 둔 결정이었다”며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에 금리를 적어

도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움직임이 한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원화가치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달러 환율의 전망치를 각각 1,250원(3개월), 1,150원(6개월), 1,120원(12개월)으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일합시다

Table listing job openings with columns for company name, position, salary, application date, and contact info. Includes logos for Recruiters Gwangju Network and 062.JOBKOREA.CO.KR.

SK Telecom advertisement for a 50% discount on mobile phone services. Text: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료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